

#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8, 와 초기 기독교 에 있어서 외경의 영향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세션 8, 신약성서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외경의 영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외경이 신약성경의 저작물과 신흥 문학, 초대 교회의 사상에 끼친 영향의 흔적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외경의 사용에 관해 말하는 것은 아마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어떤 저자도 외경의 본문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외경의 어떤 본문도 신성한 성경으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경우처럼 말이 표현된다면 저자나 화자가 이 본문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주제에 대한 권위 있는 단어로 받아들이지 않을 텍스트를 인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가 권위, 즉 논쟁을 이기는 신성한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의 표시로 명시적인 인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약성서를 제공한 목소리, 심지어 예수 자신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목소리의 생각과 글쓰기에 일종의 형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경 텍스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영향력의 문제는 방법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텍스트 A와 텍스트 B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든 자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는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화자 또는 작가가 그럴듯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를 기반으로 한 두 텍스트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특해야 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 충분히 많고, 상세하고, 널리 퍼져 있어 이 두 텍스트 사이의 일치가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텍스트 A와 텍스트 B 사이에 하나의 접점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의 접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논거는 아닙니다.

텍스트 B 전체에서 텍스트 A 전체의 자료와 접촉 지점이 많다면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향력의 문제에 관해서는 벤 시라의 지혜(*Wisdom of Ben Sira*)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외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이며 아마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질문과 관련하여,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되는 본문(이 경우 Ben Sira)이 예수와 야고보와 같은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나는 벤 시라(Ben Sira)의 경우를 말하고 싶고, 저자가 유대인 지혜의 주류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예수와 야고보처럼 스스로 교사가 되는 특히 동기가 부여된 유대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를 어떤 형태로든 통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 Ben Sira 자신은 경력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교육 학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다른 많은 현인, 서기관, 유대인 엘리트 지도자들의 유명하고 평판이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토라 준수가 논의되던 시대에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언약에 얼마나 묶여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충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목소리로 기억될

것이며, 따라서 제이슨이나 메넬라오스와 같은 등장인물이 이 주제에 관해 말해야 했던 것과는 반대로, 충실한 세대가 나중에 의지할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Ben Sira는 후세를 위해 그의 가르침을 글로 보존했으며, 우리는 그의 텍스트가 서기 1세기까지 이용 가능하고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 시라(Ben Sira)의 두루마리 조각은 쿰란의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열심당의 최후의 거점인 마사다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책이 1세기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수세기 후에 유대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봅니다.

1891년에 작성된 기사에서 솔로몬 셰히터(Solomon Schechter)의 연구와 집계에 따르면 그는 바빌로니아와 예루살렘 탈무드, 미드라심과 후기 랍비 문헌에서 백 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기독교 시대의 첫 세기 동안 유대인 작가들 사이에서 말하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개념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무엇이든 배워야 했다는 생각에 본질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중성을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소년 예수가 신성하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배우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두 가지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지적하고 외경적인 복음의 비전이 아닌 학교에서 예수님의 정경 비전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마의 유아기 복음을 읽는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예수를 보는, 말하자면 예수의 교육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네 가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지식을 얻으려고?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인간 선생님에게서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미리 포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영지주의 본문임을 간단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가 자라면서 유대인 교사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으며, 유대인 교사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포기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께서 알레프 문자부터 토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뛰어난 지식으로 자신의 교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확실히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도마의 유아복음에도 나오는 에피소드이다. 도마의 유아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교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백이며, 말씀하시고 성전에 있는 교사들을 침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매우 다른 그림이며 핵심 구절은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선생들 가운데 앉아 말씀도 듣고 질문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모두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정경 복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호언장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학적 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는 모종교의 선배 현자들이 제공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유대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잘 제기된 질문이 호언장담이나 대답만큼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문화의 전형적인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을 마시고, 무게를 달고, 시험하고, 탐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그의 두뇌에 모든 지식이 그대로 남아 있고 갈 준비가 된 채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확실히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오신 혁신적인 교사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 중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간접적으로 예수께서는 벤 시라의 지혜 중 일부를 마시고 승인하고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벤 시라의 본문을 읽고 그 두루마리를 어디선가 펼쳤다고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벤 시라, 지혜, 벤 시라의 가르침이 현자, 서기관, 랍비들의 지혜에 스며들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의 위치 덕분에 유대의 교사. 그리고 우리는 그가 예수님 이전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스승들의 말을 들으면서 비록 출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벤 시라에게서 발견한 것 중 일부를 마실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 특유의 자료를 볼 수 있지만,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 비슷한 비전을 가진 벤 시라(Ben Sira)의 지혜로부터 구약성서가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고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대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벤 시라(Ben Sira)는 고난 중에 간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궁핍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당신을 저주할 이유를 주지 마십시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어머니의 남편처럼 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같을 것이요 , 그분은 네 어머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벤 시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나중에 가르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거나 청원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네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아라. 벤 시라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관대하신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을 반영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나 자신이 구약과 신약에 푹 빠져 있었을 때, 나는 용서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그의 청중이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빛을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주기도문의 일부는 산상수훈에서 해설을 받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 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강화하는 것이 21절이나 23절에서 3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억을 되살리시려고, 혹시 그 빛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종이 주인에게 일정한 빛을 쬐습니다. 가령 백 데나리온은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주인이 그 종을 팔겠다고 위협하기 때문 입니다. 그의 가족이 돈을 회수하고 빛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빛을 갚을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솔직히 빗을 탕감해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 한 데나리온 빗진 동료를 만나니, 둘째 종이 그에게 오래 참아 달라고 간청하고 빗을 탕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종은 거절하고 빗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줍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을 찾아내어 그 종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동료가 그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구약성서만 읽는다면 이것은 참신한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벤 시라(Ben Sira)가 용서에 관해 매우 유사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웃이 행한 잘못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할 때 네 죄가 사하여질 것이라고 기록하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치유를 구합니까? 그들은 자신과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 종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전제 조건으로 서로의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나이든 현자에게서 발견합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명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명예를 두지 않는 동안 하나님께서 경멸과 우리의 죄와 범법을 제쳐두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정입니다. 경미한 점은 제쳐두고.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가치를 하나님 자신의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주 뻔뻔한 죄를 범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비유와 그분의 좀 더 추출된 교훈에서 발견되는 논리입니다. Tobit과 마찬가지로 Ben Sira도 자선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선이 토라 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 중에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en Sira나 Tobit이 하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와 동기는 구약성서 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 시라(Ben Sira) 29장에서 “계명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고 했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위하여 네 은을 잃어버리고 돌 아래서 녹슬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명을 따라 네 보물을 쌓아 두라 그것이 금보다 네게 더 유익하리라 구제금을 네 창고에 쌓아 두라. 그러면 그것이 모든 재난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제, 이웃을 향한 자선과 자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몇 가지 주요 인물과 주제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줌과 동록이 해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땅에 쌓아 두지 말고 오직 줌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라. 도둑은 침입하지도 않고 흠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에 대해 더 분명한 지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드라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도적도 가까이 못하며 줌도 해하지 못하느니라. 벤 시라(Ben Sira)처럼,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의 현재 필요를 구제하는 자비로운 일에 사용되기보다는 방치되어 있는 돈이 결국 녹슬고 도난당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벤 시라(Ben Sira)처럼 예수님도 땅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혹은 단지 땅 속 구멍이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더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보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은 Ben Sira가 아마도 사후 세계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벤 시라의 경우, 하나님과 함께 쌓인 보물은 자신이 필요할 때 이생에서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영원한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이에 동의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준 것만 간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저장하려고 노력한 것은 손실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제하기 위해 당신이 기부한 것은 하나님의 계정에 영원히 당신과 함께 남습니다. 우리는 2세기 후에 벤 시라와 예수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추정에 대해 가르치고 추정에 반대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벤 시라(Ben Sira)는 두 번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나의 많은 선물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벤 시라(Ben Sira)는 일종의 속담 형식으로 선한 행동이나 자선 행위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갚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죄는 심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속담적인 가르침인 직접적인 담화보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내러티브 방식으로 매우 유사한 점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도적이거나 불순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 세리와 같은 자니라.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마도 거기에는 예수의 비유 외에는 직접적인 의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 지혜 전통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와 깊은 공감을 얻습니다. 즉, 당신의 경건함과 자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죄와 범법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경건한 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추정하기보다는 겸손을 유지하고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서신 요점은 벤 시라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로의 초대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대는 이 문화의 다른 현자들과 다른 지혜의 교사들, 특히 벤 시라(Ben Sira), 51장에서 온 다른 초대와 상당히 놀랍게 반향을 일으킵니다. 배우지 못한 너희여,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내 학교에 머물라. 너희 목에 멍에를 메고 너희 영혼이 교훈을 받게 하라.

가까운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적게 수고하고 많이 쉬었음을 네 눈으로 보라. 둘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초대,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초대, 제자가 짊어져야 할 멍에로서의 가르침의 이미지. 제자가 그 멍에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멍에를 안식의 길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가장 큰 차이점은 Ben Sira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학교 건물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길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머리 돌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유대교의 학문과 경건의 공식적인 구조와는 거리가 먼 순회 사역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나는 벤 시라(Ben Sira)의 자료가 유대 전역에 걸쳐 교육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승인하셨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가르침을 수정하고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에게서 찾은 것과 벤 시라에게서 찾은 것 사이에는 몇 가지 매우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 시라는 자선과 원조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관대함을 경건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선한 사람들에게로 제한하라고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그가 추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간구하는 사람에게 관대함을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관대하시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 시라(Ben Sira)에 나오는 자신과 같이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벤 시라(Ben Sira)의 신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계시고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Ben Sira는 집 안의 사적인 공간에 여성을 단호하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비록 몇 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둘 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벤 시라(Ben Sira)와 두 가지 모두에서 아주 확고하게 헤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관련하여 그분은 자유롭게 교류하시고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그의 비유의 영웅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잘 반응하는 사람들로 뽑혀집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나병환자 중 단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여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남자 제자들과 함께 그의 가르침을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환영받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집 안쪽 부엌 공간으로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회 사역을 지지하고 단지 수표를 써서 멀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사역을 수행한 재력 있는 여인들에 대해 배웁니다.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여성이 남성의 호위를 받지 않는 것은 그 문화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담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벤 시라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아내에게 이혼하라고 조언한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표현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토라 자체의 이혼에 대한 법적 규정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어렸을 때 배웠던 회당에서 물려받은 지혜의 전통에 날카롭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몇 가지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벤 시라(Ben Sira)와 적어도 기독교 운동의 유대인 기독교파의 지도자가 된 예수의 이복형 야고보 사이의 몇 가지 영향 지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애 중 적어도 30년 동안, 즉 서기 30년부터 서기 62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마침내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의 벤 시라와 그의 서신을 쓴 야고보 둘 다 언제, 서기 40년에서 62년 사이에 두 현자가 신학적인 문제를 언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두 현자가 모두 언급했습니다. 혀의 위험, 말하는 것의 위험. 즉, 말은 치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말은 상처를 주고 파괴할 수

있으며, 말은 호의를 얻을 수 있고, 말은 멀어지거나 호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en Sira의 지혜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이 주제로 여러 번 돌아옵니다. 누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유효한 인을 세워 내가 그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 혀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겠느냐? 그리고 벤 시라(Ben Sira)는 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혀가 경건한 자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불꽃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그 권세에 빠지리라. 그것은 그들 가운데서 불타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는 또한 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다. 그것은 우리 회원들 사이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몸을 더럽히고, 자연의 순환을 불태우며, 그 자체가 지옥불에서 불붙는다.

불안한 악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존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혀가 당신을 태울 수 있고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타는 불이라는 이미지는 야고보가 물려받은 지혜 전통에서 이어받은 이미지입니다. .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가까운 대응점은 두 현자가 말의 이중성을 보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벤 시라(Ben Sira)는 불꽃을 불면 빛날 것이라고 썼습니다. 침을 뱉으면 꺼집니다. 그러나 둘 다 당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가질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효과에 대해 생각하는 맥락입니다. 그것은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호의를 얻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행위 모두 같은 샘, 같은 주둥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James는 훨씬 더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사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혀로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연은 동일한 구멍이 그렇게 다른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멍에서 샘물, 담수와 기수 모두가 쏟아지나요?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어찌 올리브 열매를 맺겠으며 포도 나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소금물이 신선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현자는 말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결과의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며, 자신의 제자들과 듣는 사람들에게 말에서 더 큰 진실성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축복이 나옵니다. Ben Sira는 현자가 격언을 승인하고 그것에 추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늘 잠언을 통해 지혜를 생각합니다. 현인은 항상 속담에 대해 생각하고 속담과 속담의 레퍼토리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벤 시라(Ben Sira)와 제임스(James)라는 두 현자 사이에 이런 종류의 활동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벤 시라(Ben Sira)도 잠언의 정경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대답은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소 기발하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언을 승인하고 그것에 조항을 추가하는 현자로서 제임스의 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다고 추정되는 신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유혹의 근원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두 현자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더욱

심각한 대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두 현자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김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벤 시라(Ben Sira)는 주님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떠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불경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을 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벤 시라(Ben Sira)와 야고보(James)는 모두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나 근원이 되는 것을 멀리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죄를 유혹하는 근원이며, 죄에 굴복하거나 죄에 저항하는 능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벤 시라(Ben Sira)가 말했듯이, 그분은 당신 앞에 불과 물을 두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든 손을 뺄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인간 앞에 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부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죽음으로 이끄는 갈망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것인지 인간의 선택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두 교사인 야고보와 예수가 자신들이 배운 현자들의 말을 더 자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벤 시라 자신이 잠언,

즉 정경인 잠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언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암송합니다. 암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는 잠언의 자료를 귀속 없이 자신만의 새로운 자료로 엮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잠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일종의 의역으로 표현하면, 그는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각주 없이 전달하는 지혜의 일부를 만듭니다. 예수 전통의 위대한 학자이자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대인 리차드 보컴 (Richard Bauckham)은 그것이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현자의 실천이었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인용이 전부였던 랍비 이전 시대이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표현하는 현자의 실천을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Baucom을 인용하여 전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지혜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식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James와 Jude에서 Paul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방인 종교와 이방인의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관행에 대해 생각할 때 솔로몬의 지혜에서 발견한 자료가 바울의 생각에 형성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벤 세라는 예수와 야고보보다 200년 전에 글을 썼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텍스트가 널리 퍼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걸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역하기 불과 몇십 년 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불과 10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서의 연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솔로몬의 지혜서가 바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암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바울에게도 영향을 준 헬레니즘 유대 전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우리가 외경에 익숙하다면 풀과 같은 작가가 언제 새로운 자료를 창조하는지 더 잘 알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은 작가가 자신이 물려받은 잘 발달된 전통을 끌어낼 때,

이것은 특히 이방인의 종교와 관습에 대한 바울의 비판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저자는 13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천성적으로 공허한 자들”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만드신 것에 매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된 만물의 권능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서 발견하는 것은 창조 속에 하나님의 각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 자체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위엄, 능력, 신성한 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핑계가 없지 않습니다. 창조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방인의 책임과 죄성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전통적인 주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침묵시키는 인간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의 저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후자의 저자는 창조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숭배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솔로몬의 지혜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이방 사회에 만연한 윤리적 혼란, 즉 윤리적 무질서의 뿌리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서 14장에서 모든 것이 피와 살인과 도둑질과 속임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읽습니다.

부패, 약속 위반, 격변, 거짓 맹세, 이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간음과 난잡함이 넘쳐납니다. 이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요,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로 돌아가면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인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혼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정욕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완전한 마음으로 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불의와 악한 행실과 탐욕과 악한 행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살인과 싸움과 사기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력이 없고, 충성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문화의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해 전통적인 헬레니즘 유대인의 설명을 채택하고 사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승인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지혜서 솔로몬의 저자가 취하지 않은 놀라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2장에서 유대인의 관습과 사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주의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점에서는 어떤 민족이나 이방인의 경우에는 여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외경 문학이 초기 기독교 사고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방식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카베오서 2서와 4서, 특히 마카베오서 6장과 7장의 아홉 순교자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히브리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실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념하는 말미, 즉 믿음을 구현한 옛 사람들을 찬양하는 말미에 이 구절을 포함시켰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석방을 거부하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저자는 부활을 두 번 사용하지만 부활의 두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 그는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궁핍한 과부의 자녀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소생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1세기에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생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은 노년기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다른 내용이 언급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석방을 거부하면서 고문을 받은 사람들. 물론 더 좋은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마카베오후서 6장 18절부터 7장 40절까지의 순교자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는 유대인 전통의 사람들이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기만 하면 고문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특별히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했던 일을 다른 초기 기독교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신약성경을 넘어 2세기와 3세기 초기 교회에 대한 외경의 영향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훨씬 더 집중적인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서기 2세기와 3세기에 점점 더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은 서기 235년경으로, 실제로 로마 세계에서 박해가 들불처럼 터진 것은 3세기입니다. 기원 후 235년에 쓴 오리진은 체포되어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두 집사 암브로스아와 프로타투스를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장기간에 걸친 죽음의 경험에서 해방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인지를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이 순교에 대한 권고를 쓸 때, 그것은 사실상 마카베오서 2장 6장과 7장에 대한 긴 강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용기를 흠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델을 줄 모범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 4세 이전의 순교자들이 직면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경쟁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오리진은 마카비 2서와 4서 모두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2 마카비의 텍스트를 따르지만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4 마카비의 대화 스크랩을 많이 추가합니다. 따라서 일곱 형제는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남자라기보다 소년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순교의 강력하고 고귀한 모범이 됩니다. 그는 특히 엘아자르의 마지막 말을 죽음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사고방식의 모델로 칭찬합니다.

즉, 다른 사람, 이 경우에는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 형제자매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겠다는 헌신을 약화시켜서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영생을 얻습니다. 오리진은 마카베오 두 사람의 고문을 소름끼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여 이 두 집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든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 견뎌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오리진 역시 마카베오서 2서, 4서처럼 감사라는 주제를 사용해 기독교 순교자들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순교란 애초에 생명을 주신 분께 생명의 선물을 완벽하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르타고의 키프리안(Cyprian)은 서기 256년경에 순교에 관한 권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리진처럼 마카베오 2서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의역하고 인용하면서 다음 번 큰 박해의 물결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마카베오 2서 및 4서와 이러한 순교자 이야기의 영향은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실제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지배적이고 다수의 종교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어거스틴은 설교에서 청중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순교자들을 찾습니다. 일곱 형제의 어머니는 박해의 세기 동안 어머니 교회의 원형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비록 이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순교자들이었다는 점을 매우 충격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새 언약을 앞둔 옛 언약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들은 율법에 가리워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기독교의 성인 달력에 유대인 순교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는 점을 간단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직 이 순교자들만이 마카베오서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월 1일이 그들의 날이었고 4세기와 5세기의 일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저장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스소스톰은 모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그러한 헌신을 보여 죽음을 즐겼기 때문에 성인 달력에서 그들의 위치를 옹호했습니다. 무시무시하다. 요한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의 글을 살펴보면 이 순교자들의 다른 용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마카비 2서보다는 마카비 4서에 훨씬 더 부합하는 용도입니다.

요한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은 마카비 4서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순교자들을 정욕의 맹공격에 맞서 덕으로 인내한 사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 순교자들이 고뇌 속에서 자신들의 철학에 헌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청중들에게 분노, 돈에 대한 욕망, 육체적 정욕, 공허한 영광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열정에 대해 많은 인내를 나타내도록 격려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다시 한 번 기어를 바꾸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방식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영역, 특히 성육신 전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동등하다고 믿는 영역에서였다. 하나님과 영원하신 아들과 함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다고 믿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솔로몬의 지혜는 그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논의한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자체는 잠언 8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창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에서 건축가와 함께 장인처럼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의 저자는 지혜에 대한 설명에서 더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7장에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지으신 지혜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을 인용부호로 묶어서 읽습니다. . 성모님은 하느님 능력의 숨결이시며, 하느님의 행동 능력을 보여주는 흠 없는 거울이시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십니다.

하나이시므로 그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그대로 남아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선지자 와 하느님의 친구로 만듭니다. 이제 잠언을 넘어 솔로몬의 지혜의 저자는 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흠 없이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는 생략한 것 같지만 빛, 광채, 빛의 근원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혜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성육신 전의 예수와 성육신 전의 태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15-17에서 이러한 의미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해는 형상입니다. 또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물은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 중 많은 부분이 지혜를 일종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말하는 잠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은 솔로몬의 지혜서 7장에서 지혜의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 나아갑니다. 기록하기를,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를 창조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만물을 보존하시느니라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태양의 이미지 또는 개념은 광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조명인 지혜의 이미지를 재사용한 의역인 것 같습니다.

태양이 하나님 존재의 정확한 각인이라는 개념은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태양이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계속 지탱하는 지혜로 나아갑니다. 즉, 잠언 8장뿐만 아니라 제2성전 기간에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텍스트에서 발전된 지혜 전통은 성육신 이전에 태양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결정하거나 생각하는 데 대한 원재료를 제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초대교회에서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종속이나 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라는 신조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태어난 아들의 영원한 세대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uad Volt Deus 라는 초대교회 교부.

분명히 그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의미합니다. 쿼드 볼트 데우스(Quad Volt Deus)는 지혜가 땅의 한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힘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주장하기 위해 지혜 8:1을 적용 합니다 . 아버지의 동일한 편재성과 전능함.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는 솔로몬의 지혜서 7장 25절을 인용하여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산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영원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아들이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듯이 빛은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암브로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빛의 광채가 빛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아닙니다. 즉, 초기 교회 교부들은 기독교론과 삼위일체 신학의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분류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의 형상에 대한 발전된 그림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초기 교회 교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증거로서 외경을 읽은 몇 군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과 신약성서 저자들이 우리를 위해 정경 구약성서를 예언적 증거로 읽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예수의 독특한 메시아 형태가 모두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바룩 3장 36~3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진술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의 아들 야곱,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지혜 곧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상에 나타나 인간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읽으시면 제가 그녀 또는 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에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녀인지를 결정하는 대명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의 여성 지혜에서 그 시점의 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인간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바룩서 3장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육신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며, 하나님을 그가 이 땅에 나타난 동사의 주어로 이해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2장은 예언,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으로도 읽힌다. 솔로몬의 지혜 2장에서 우리는 이 계획이 불경건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읽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매복해 있자.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그를 극단적인 시험에 빠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만일 이 의로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리라.

아마도 나는 거기에서 제쳐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조롱하는 내용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구원하실진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느니라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폭행하고 고문하여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의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시험해보자.

그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야 한다. 이 구절에서 어거스틴은 가장 공개적으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수난을 발견했으며,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그의 불경건한 살인자들이 말할 내용에 대한 미리보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과 시릴, 푸아티에의 힐라리도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위해 전형적인 구약 성서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참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외경이 이미 우리의 경전과 모든 기독교인이 인정하는 기독교 전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는 정경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은 기독교론과 삼위일체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위조되었을 때 바룩과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외경, 즉 외경은 합의된 구약성서의 본문과 함께 핵심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는 데 유용한 자료였습니다. 이 때문에, 외경이 교회의 초기 세기에 미친 영향과 우리 기독교인의 조상들이 신약성경의 일부 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명백히 존경한 것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들이 이 책들을 받아들인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상속자인 우리가 최소한 그들이 매우 귀중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의 저서에 큰 흔적을 남긴 이 자료들을 숙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세션 8, 신약성서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외경의 영향입니다.